



보도자료

보도시점 2025. 7. 8.(화) 배포 2025. 7. 8.(화) 10:00

국립백두대간수목원, 경남 거창군 협업 우리나라 자생수련 '꼬마수련 특별전' 개최

- 7월 1일부터 9월 7일까지 국립백두대간수목원 수련정원서 개최 -

산림청 산하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(이사장 심상택)은 7월 1일부터 9월 7일까지 국립백두대간수목원 수련정원에서 '꼬마수련 특별전'을 개최한다고 밝혔다.

이번 특별전은 경남 거창군에 자생하는 우리나라 수련인 '꼬마수련'을 중심으로 꾸며졌다.

꼬마수련은 꽃의 암술머리가 노란색, 꽃받침이 사각형이며 그 크기가 약 4cm로 매우 작다.

꼬마수련(*Nymphaea pygmaea* (Salisb.)W.T.Aiton)은 약 100년 전 일제강점기에 일본의 식물학자에 의해 발견돼 도쿄대학교와 교토대학교에 소장된 후 2000년대 초까지 우리나라에서는 찾아볼 수 없었다.

이후 2014년에 국립생물자원관과 대구대학교 교수팀이 각시수련 연구를 수행하던 중 꼬마수련을 발견한 바 있다.

이번 특별전에서는 꼬마수련 등 자생 수생식물 8종과 토란속(*Colocasia*), 칸나속(*Canna*), 수련속(*Nymphaea*) 등 우리나라 수생식물과는 다른 매력이 있는 온대수련 24종으로 다채로운 수생 경관을 감상할 수 있다.

이규명 국립백두대간수목원장은 “거창군의 꼬마수련을 활용한 전시를 통해 우리나라 자생식물의 가치 제고와 보전의 중요성을 알릴 계획”이라며 “거창군 관광자원을 알려 지역상생의 기회로 삼았으면 한다”라고 말했다.

담당 부서	국립백두대간수목원 서비스본부 전시원실	책임자	실 장	이재선 (054-679-2711)
		담당자	주 임	김성환 (054-679-0521)



1. 7월 1일부터 9월 7일까지 국립백두대간수목원 수련정원에서 개최하는 '꼬마수련 특별전'의 주인공 꼬마수련 모습